

<산문 영역>

최우수작, 11학년 권혜나 (초대)

제목: 내가 보내는 초대장

제 정원 주위에 사람이 지나가면 저는 그 사람을 잠시 붙잡고 조심스레 제 정원으로 초대한다는 짧고 정성스러운 글이 써진 초대장을 내립니다. 사람에 따라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초대장을 건네기도 하고 정중하고 단정한 분위기의 초대장을 건네기도 합니다. 모든 만남은 시작이 중요하니 초대장은 초대장을 받을 사람이 좋아할만한 분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몇 년 더 초대장을 만들다보니 조금은 요령이 생기는 듯 합니다.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초대장에 관심을 보여 제 정원까지 발걸음 해주시겠죠? 가끔 제 초대장을 받고도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음에 만날 때 더 정성을 들인 초대장을 건넵니다.

제 정원에 발걸음 해주신 분들을 위해 정원의 입구는 가장 아름답게 꾸미려 노력합니다. 정원의 입구가 마음에 들어 더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원의 입구에는 벤치가 있습니다. 잠시 앉아서 구경하며 쉬다 언제든지 정원의 더 깊은 곳에 관심이 생긴다면 들어오라고 만들었어요. 제 정원의 입구라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가끔 벤치에서 쉬던 분들이 입구보다 아름답지 않은 정원의 깊숙한 곳을 보고 실망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의 안쪽을 더 가꾸기 위해 정원에 들린 사람들의 조언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정원에 놀러가 배울 점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아주 가끔, 제 정원의 끝자락까지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름 정원의 깊숙한 곳에서도 매력을 찾아주셨나봐요. 이런 분들에게는 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꽃 한송이와 따듯한 차 한 잔을 대접합니다. 제 정원에 대한 감상평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 분들의 정원은 어떤지 궁금하여 물어보기도 합니다. 짧은 대화 이후 저는 그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쥐어드리고 정원의 입구까지 배웅해 드립니다. 하지만 더 드물게, 아주 가끔, 제 정원의 끝에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면 등불을 쥐고 그 분의 길잡이가 되어 정원의 끝까지 안내해드립니다. 하지만 그 끝으로 가는 길목에는 미로가 있습니다. 그 미로를 나가면 제 정원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 저도 제 정원의 끝에는 가기 싫은지라 주로 사람들을 이 미로 속에서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제 정원의 끝은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 정원은 이렇게 넓고 잘 가꾸어져 있지 않았습니니다. 처음에는 아담하지만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의 매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 둘 제 초대장을 따라 정원에 오고 실망해 돌아가는 일이 빈번해지자 저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을 심고 잡초는 일일이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정원의 입구만 신경쓰다 보니 정원의 안 쪽은 상대적으로 덜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제 정원의 끝입니다. 그 곳은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고 다른 지역의 꽃을 심어도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 골칫덩어리를 숨기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제 정원의 끝에 도달하게 해주는 길인 이 복잡한 미로입니다.

저의 방해와 어두운 길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긴 미로를 뚫고 제 정원의 끝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제 정원에 발을 들였던 사람들의 수에 비해 아주 적은 수 입니다. 하지만 제 정원의 끝을 궁금해하며 미로를 지나온

정성을 볼 때면 제 정원의 끝이 끝이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는 이 때 느꼈던 기분을 잊지 못 해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려 제 정원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건네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수작(공동), 12학년 김세린 (초대)

제목: 꿀씨로의 초대

꿀씨. 이 단어를 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낙오자 또는 실패라는 단어를 연상한다. 꿀씨란 성공하지 못한 자 또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낙오자. 하여튼 꿀씨라는 단어를 달가워 할 현대인은 거의 없다. 우리 사회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평가하고, 점수 매기며 분류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이고, 무수히 많은 싸움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인지도 모르는 채.

‘F’였다. 분명히 내 손에 쥐어진 이 A4 반쪽짜리 종이는 내가 시험에서 F를 받았다고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다. 나는 내 눈 앞에 보이는 이 점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F라니……. 내가 F라는 게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분명히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점수가 내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을 터였다. 미국으로 옮겨온 지 1년 만에 겨우 ELD (English Learning Development) 과정을 마치고 정규 영어 수업에 와서 보는 첫 시험이었다. 첫 시험이라고 잔뜩 겁을 먹은 나는 제대로 준비를 해보이겠다며 교과서나 학습지나 온갖 자료를 완독하고 이를 간 채 본 바로 그 시험 말이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시험지가 나눠지는 소리에 나는 얼굴이 퍼렇게 질리고 손을 떨기 시작했다. 뇌가 돌아가기 시작하니 머리는 뜨거운데 몸은 차가웠다. 에드거 앨런 포, 운율, 비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문제들이 눈을 스쳤고, 내 손은 정답을 찾아 바쁘게 움직였다. 그런데, ‘F’였다.

미국에서의 2년 반은 내게 수많은 ‘F’를 던졌다. 위의 시험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성적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이었다. 영어도 잘하지 못했던 나는 엄마 손에 이끌린 채 전교생이 1400명인 로스앤젤레스의 한 중학교에 입성했다. 허나, 아메리칸 드림에 푹 젖어있던 나에게 돌아온 것은 정신차리라는 첫날로부터의 강렬한 한 방이었다. 모르는 언어, 낯선 사람, 바쁜 학교. 나는 그 어디에도 속해있지 못했다. 영어로 질문 한 마디도 못하던 나에게 그 첫날은 답이 없는 문제와도 같았다. 옆친 데 옆친 격이라고 했던가. 나는 인종차별과 왕따라는 새로운 문제와 마주쳤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내 뒤에서 속삭이던 그 남자의 표정은 마치 내게 넌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간혹 들리는 욕설에 내가 움찔거리면 낮게 깔리는 조소가 들려왔다. 첫 1년은 이런 조소와 조롱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이 악의가 가득 찬 말들은 하나같이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넌 여기에 속하지 않아. 넌 실패했어.”

나는 낙오자라고. 나는 ‘F’라고. 나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던져지는 무수한 ‘F’에 나는 좌절했다. 사람이 무서웠고, 나 자신을 경멸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돌아와 집의 고독함을 즐기며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다.

“세린아, 집에 왔어?” 엄마였다. 웬일로 일찍 퇴근하신 엄마가 나를 불렀다. 그 순간 마음 깊숙이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엄마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나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채로 눈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엄마는 그런 날 보고 당황하더니 이내 날 껴안고 등을 토닥여주었다. 눈물을 참아보겠다는 내 의지는 꺾꺾이는 내 소리에 묻혀버렸다. 꼭꼭 참고 있던 나는 결국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나 너무 힘들어, 엄마.”

“뭐가 그렇게 세린이를 힘들게 할까?”

“나 진짜 잘하고 싶은데 자꾸 실패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진짜 너무 힘들어.”

“세린아, 꼴찌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하면 어때. 꼴찌하면 또 어떨고. 꼴찌는 위로 올라갈 곳만 남았는 걸. 엄마는 우리 딸이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엄마가 절해야 돼.”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 한 번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눈물은 마음 속 응어리의 외침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 눈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다시 일어나 도전해 보라는 초대에 대한 나의 응답이었다.

꼴찌도 괜찮다. 꼴찌면 어떨고, 실패하면 어떨라. 꼴찌는 낙오자가 아니다. 그 사람이 못나서는 더더욱 아니다. 이제 더 올라가자고, 같이 일어나 앞으로 향해보자는 세상의 부름이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꼴찌에게 무한한 박수와 칭찬을 보내고 싶다. 더불어 미국 중학교 복도 위 모르는 남자애의 옥설에 얼어붙은 그 여자애에게도, ‘F’가 매겨진 시험지를 보며 스스로에게 ‘F’를 선고하던 소녀에게도, 지금 이 순간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네 사회 어딘가에 있을 ‘꼴찌’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실패의 쓸쓸함을 맛보게 될 지 모르는 미래의 ‘꼴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비상하길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들에게 초대를. 스스로에게 ‘F’를 던지는 낙오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초대를. 꼴찌로의 초대를.

우수작(공동), 11학년 이종혁 (먼지)

제목: 회상

오랫만에 책꽂이에 꽂혀있던 중학교 졸업앨범을 꺼내보았다. 나름 미적 감각을 살려 디자인 했다고 자랑하시던 선생님이 만드신 표지는 어느덧 색이 어느정도 바래진 갈색을 띄고있었다. 검지로 표면을 스욱 훑었다. 손가락에 부드러운 가루가 한데 뭉치는 느낌이 들었다. 손을 떼어보니 회색의 먼지가 한가득 묻어있었다. 손가락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 생기를 머금은 밝은 가족빛깔의 갈색이 방긋 웃어보이고있었다. 휴지를 뽑아 손가락을 대충 스욱 닦고 두꺼운 표지를 넘겼다.

왜 써놓았는지 모를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을 뒤로한 채 페이지를 한장 한장 넘겼다. 낯익은 선생님들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에서 멈췄다. 매일 봐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선생님들도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한번도 마주쳐본 기억이 없는 선생님들도 수두룩했다. 복도에서 몇번 마주쳤지만 내가 기억을 못하는거겠지. 사진속 선생님들은 모두 웃고계셨다. 내가 기억하는 선생님들의 표정은 그거보다 훨씬 다양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웃는것보단 걱정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가 더 많았더것같다. 수학선생님은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을 때가 드물었고, 영어선생님은 근엄한 표정으로 우리를 혼내시기 일쑤였다. 과학선생님은 사진에 나온것보다 더 환하게, 자주 웃으시던 부니었는데 모두가 똑같은 표정으로 웃는 바람에 튀고싶지 않으셨나보다. 내가 이거하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다 사진에 나온것처럼 평소에도 웃고 다니셨을까 문득 궁금해졌지만 그렇게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페이지를 넘겼다.

내가 모르는 아이들의 사진들이 수두룩했다. 한 학급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가. 복도를 걸어갈 때 종종 마주치던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말 한번 걸어보지 않은 아이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은 썩 좋지 않았다. 무언가 어색했다. 아무리 사진이라도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다. 그렇다가도 친한 친구의 사진이 나올 땐 친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평소와 다르게 말끔히 차려입은 교복 마의가 오히려 더 어색했다. 당장이라도 입술을 움직여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건네고 멧쩍은 웃음을 지을 것 같았는데, 한참을 쳐다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새로 사귄 친구들에 밀려 메세지 목록 저 아래로 내려가버렸던 친구를 내버려두었던 것이 새삼 후회가 되었다. 이따금씩 연락 한번 해서 생존 여부라도 묻자고 다짐했던 서로의 약속이 떠올랐고, 난 그제서야 핸드폰에 저장돼있던 친구의 번호로 짧은 문자를 하나 보냈다. “살아있냐?”

페이지를 넘길수록 친했던 친구들과의 기억이 떠올랐다. 함께 했던 수학여행부터 소소한 일상까지, 평소에 까맣게 잊고있었던 추억들이 머릿속의 금고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비밀번호를 너무 길게 설정해두었던 텃일까, 오랫동안 방치해두어 비밀번호를 까먹어버린 텃일까,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추억의 금고가 그렇게 허무하게 열려버렸다. 자고있던 나를 툭툭 깨워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던 친구와 나를 들쳐업고 교실을 뛰어다니던 친구, 그리고 쪼잔하게 지우개 좀 안빌려준다고 대판 싸웠던 친구까지 몽땅 다 보고싶었다. 교실의 쿼퀴한 나무 향기, 오래되서 지직거리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종소리, 그 모든게 그리워졌다. 우연히 나와 친구들이 다같이 찍힌 체육대회때의 사진을 검지로 쓰다듬어 회상을 하려고 하는 순간, 종이가 매끈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앨범이 굳게 닫혀있었던 텃인지 손에는 먼지 한 톨 묻어나지 않았다. 몇번을 만져봐도 똑같았다. 처음 앨범을 받았을 때와 달라진 점이 없는 그 사진엔 나와 친구들이 그늘에서 환하게 시끌벅적 떠들고 있었다.

찬찬히 앨범을 다 둘러본 나는 다시 앨범의 두꺼운 표지를 닦았다. 기분탓인지 무거웠던 표지가 조금은 가벼워진것 같았다.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덮힌 표지를 다시 보았다. 처음에 손가락으로 먼지를 닦아냈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경계가 조금 허물어져있었다. 앨범을 보던 와중에 알게 모르게 먼지가 자연스레 떨어졌는지, 표지를 덮고있던 회색의 담요는 확실히 한층 열려져있었다. 손가락을 닦았던 휴지로 앨범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책상 바로 옆 책꽂이에 새로 꽂아넣었다. 전화기에는 한통의 메세지가 와있었다.

“살아있다.”

장려작(공동), 10학년 권현진 (초대)

제목: 다음 생에도 초대할게

살면서 만들어지는 관계 중 더이상 연락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더 사랑했던 쪽이 상대를 더 그리워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네가 너무나도 그리운데, 매일밤 눈물로 베갯잇을 적시는데, 너는 어떠한지 묻고 싶었으나 어찌할 도리를 몰라 은근슬쩍 어머니께 여쭙는 적이 있다.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운 인연이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 하고. 어머니는 특유의 사투리를 섞어 웃으며 상대도 너를 그리워할지 모르니 연락을 해보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할 말이 없어 눈만 껌뻍였다. 방으로 들어왔을 때 한 눈에 보이는 네 사진에 시야가 흐려짐을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인연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니, 애초에 연락이 달아도 내 품에 안겨 예전처럼 활기차게 짚어주고 꼬리를 흔드는 것 밖엔 못할텐데. 이제는 그렇게 안아주는 것조차 할 수가 없어서 소리내어 울었다.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좋아했고, 따랐고, 믿어주었던 너. 아무래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나보다.

너를 처음 집에 데려갔을 때,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다. 솔직히 그날 호적에서 파이는 건가, 싶었지만 그렇다고 너를 다시 길바닥에 버리고 올 수는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마음도 이해는 간다. 곧 중학교에 입학할 딸이 웬 떠돌이 강아지를 데려와 키운다고 하니 기가 차고도 남을 노릇이셨을 터다. 적어도 그때의 너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었다. 아니, 어쩌면 손님만도 못한 존재였을지 모른다. 그렇게 부모님과 한바탕 하고난 뒤 나온 결론은 임시보호였다. 내가 어떻게 피딱지가 여기저기 앉은 생명을 다시 내다버릴 수 있느냐며 동물병원에 데려가 예방접종도 맞춰주고, 각종 영양제나 사료도 사다주며 먹였지만 몇 주가 지나도 너를 입양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건대 네 왼쪽 귀가 절반은 잘려나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어쩌다 그랬는지 묻고 싶은 나날들이 참 많았다. 너를 처음 볼 때부터 그랬으니까. 철없는 초등학교생들이 네게 돌을 던지고, 나뭇가지로 찌르고, 귀를 잡아당기고 하는 것을 나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검정색 털을 가진 동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무서워하는 경우가 다반사던데. 거기다가 너는 대형견에 속했잖아. 네가 두려움에 떨면서도 반항 한번 못하고 킁킁거리고 있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동정이 아니었다. 어설픈 동정으로 널 집에 데려간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감싸안아주고 보듬어주면 우주의 모든 별을 품는 까만 밤하늘이 될 수 있을텐데, 지금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비닐봉투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구나. 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이대로 두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는 그때부터 너를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임시보호 기간이 점점 늘어나며 너는 우리집에 그대로 눌러앉게 되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너를 가족으로 인정해주었던 날, 너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껴안고 네 털이 다 젖을만큼 펄펄 울어제꼈다. 목줄 사러 가자, 이 한마디가 사람을 그렇게 울릴 수 있을지는 그날 처음 알았다. 그렇게 산 목줄로 산책을 하고 있자면 사람들의 시선이 네 귀로 가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았다. 몇몇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샷대질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맹세컨대,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부끄러이 여긴 적이 없었다. 너는 늘 내 형제였고, 친구였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댈 수 있는 사랑스런 존재였으니까.

너와 지내며 단 하나 아쉬웠던 것은, 너와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했다는 것. 그것 뿐이다. 더 일찍 발견해서 집에 데려와줄걸. 그럼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네가 우리집에 오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유난히 잔병치레가 많았다. 그래서 사료를 한번 바꾸어도 마음을 졸였고, 겨울에 산책을 너무 오래 한 뒤에도 마음을 졸였다. 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걱정이 더욱 커진 것도 사실이었다. 물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우리집에 처음 왔을 때 네 나이는 네 살 전후로 추정되었다. 개의 평균 수명의 거의 절반을 이미 살아왔다면 은근히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라고 권유하는 수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무시했지만, 해가 갈수록 착잡해졌던 건 사실이다. 그래도 꼬박꼬박 검진을 받고 약을 먹던 와중, 그냥 어느날 갑자기, 네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네가 들리지 않는단 걸 눈치챈 날, 마음이 쓰라려서 밤새 울었다. 평소라면 한달음에 달려와서 안겼을 네가 아무것도 못한 채 거실 장식장만 보고 있으니 더 눈물이 났었다. 아직 네게 바다 소리도 들려주지 못했는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방울소리 나는 장난감, 그것도 돈 아낀다고 하지 말고 사줄걸. 그딴거, 백개라도, 아니다, 천개라도 사줄 수 있는데.

귀가 들리지 않아도 늘 현관문 앞에 앉아 날 기다리는 네가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대견해서 안아줄 때마다 가슴 한 켠에 걱정이 물밀듯 밀려왔다. 언젠가 이 아이가 내 곁에 없는 날이 오면 어찌지, 하고. 사실 그때 직감했던 것 같다. 우리가 함께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지만, 나는 내 수명의 절반을 떼서라도 네가 그만큼 더 살 수 있다면 양껏 즐긴다.

그런 생각들은 아직도 하는 게 사실이다. 네가 알면 뭐라고 할까. 미련하다? 그러지 말아주라. 나는, 네가 내 곁을 떠난지 몇 년이나 지났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너를 잊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지, 네가 내 인생에서 만난 제일 소중한 인연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새도 너는 내 일상 속에서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래서 네 생각이 많이, 정말 많이 나는 날에는 이불을 부여잡고 운다. 나는 너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찾아오는지 묻고 싶은 날들. 그런 날들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너를 초대할거다. 그때도 내 초대에, 내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겠냐는 초대에 응해주었으면 좋겠다.

장려작(공동), 9학년 이주은 (매듭)

제목: 매듭

우리에게 보이는 실과 보이지 않는 실이 있다. 보이는 실로 우리는 바느질을 하고 보이지 않는 실로 우리는 서로를 연결한다. 이것을 우리는 '관계의 실'이라고 칭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황에 따라 실의 길이, 팽팽함의 정도가 다른데 이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 버리면 우리는 각자의 실 끝에 매듭을 짓고 관계의 선을 끊는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새로운 실을 연결하고 또, 매듭을 지어가며 살아간다. 즉, 이것은 당연하다고 볼수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지나간 인연을, 이미 맺어진 매듭을 바라보며 후회를 할까? 왜 나는 우리 관계의 선에 지어진 매듭을 보며 후회를 하고 있을까.

우리의 관계의 시작점은 누구보다 평범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뻔해빠진 만남이었고 흔한 드라마나 소설처럼 아름답고 쿨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특별했다, 남들과 달라서,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닌 단순하게 너와 내가 만나 눈을 마주치는 모든순간이 특별했고 아름다웠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너와 나는 달라도 너무 닮았다, 너의 뒤에 항상 붙는 타이틀은 친절한 애, 정이 많은 애, 잘사는 애, 인기많은 애 등등이었을 것이다. 그에 비해 나는 평범했다, 특별하지 않았고 친구는 그런대로 친한아이들만 친했다. 우리의 첫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사실 우리의 첫만남은 기억나지 않는다. 너의 첫느낌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난 너가 좋았다. 너가 인기많은것,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점에 나는 아마도 심통이 났던것 같다. 그 이후론 우린 자주, 매일이라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정말 자주 만났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가 소중했다.

우리는 우리가 평생 친할줄 알았다, 아니 적어도 나는 우리가 평생 친하게 서로 무덤까지 갈 줄 알았다. 그건 단순한 나의 착각이었나보다. 우리의 관계의 실이 가까운 만큼, 팽팽했던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시간을 또 공간을 내주었어야 했나 보다. 너는 나를 배려해 주었다 다른 나라에 가는 나를 배려하여 우리의 추억을 만든다고 너는 일이 끝나 우리 집앞에 찾아와 밥을 사주고, 예쁜사진 찍어준다며 경복궁에 데려가 어여쁜 옷을 입고 사진도 마음껏 찍었다. 그리고 헤어지는 날 내가 지하철 역으로 들어가자 조금뒤 뒤따라 들어오더니 헤어지기 아쉽다고 몇번이나 인사하고 안더니 나를 보내주었다. 나는 이런

너가 평생 내곁에서 날 지켜주고 날 생각해 줄꺼라 믿었나보다. 우리의 이별은 생각보다 가까워 지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새벽에 너가 연락이 왔다 한번만 목소리 들어보고 싶다고, 왜 그것이 마지막인지 몰랐을까.

우리 인생엔 여러가지 실이 있다 여러명과 이어진 이것을 끊는 법도 여러가지인데 자의, 타의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우리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어쩔수 없이 헤어지게 됐다. 아직도 그립다 어린 날 안아주던 너가, 날 데리고 금붕어 먹이를 주러가던 너가, 내 인생에 녹아있던 너가, 너와 나는 관계에 매듭을 지었다. 나는 아직도 너가 그립다 사진을 보며 널 그린다.

나의 할아버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운문 영역>

최우수작, 11학년 김원서 (매듭)

우울증의 매듭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존재했던 작은 매듭.
언제부터였는지 점점 커지고 있다.
원래 컸었던 걸까.
점점 나를 저 바닥으로 끌어당긴다.

이 매듭 안에는 돌멩이라도 있는걸까.
아니. 이리도 날 빨리 끌어 당기는걸 보니 바위 썸 되겠다.
조금씩 조금씩 날 옥죄오는 이 느낌에 턱 숨이 막히지만
어느날 또 사라지고 만다.

사라지는 것을 보니 매듭이 풀어지긴 하나보다.
없어지고 나면은 마음은 편하지만
다시 날 죽이러 올까 으레 겁에 질려
두배로 커진 것이 날 집어삼킨다.

엄마는 날 이해한다고 한다.
하지만 엄마.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이해할까.
이 매듭은 끊어질 수 있기는 한 걸까.

우수작, 11학년 강희민 (꿈과 근심)

뒤척이다

매트리스에 눕혀진 내 몸,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해,
간신히 간신히 장작에 붙어있는 불씨처럼
찬공기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이불 속에 파묻힌다.
그러곤 눈을 감고
정겨운 정적이 들려와서야
웅크린다

머릿 속에 그림을 그린다.
새찬 날개펴고 날아오르던
그런 초록색 꿈이 아니다.
글자들, 숫자들, 붉은 선들,
되려 철냄새 가득한 회색 꿈이다.
머리가 아파온다.
어렸을 땐 그렇게나 쉽게 무찔렀던 괴물들은
이젠 너무 커버렸다.
심장이 조여온다.
사그라들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답답하다.
이불에서 머리만 살짝 빼내어
차가운 공기를 크게 머금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한숨을 쉬어보니
먼지가 크게 일렁이다,
떠올랐다,
소용돌이를 그리다,
엷히고 설키다,
떨어진다.
난 왜 떨어지지 못하는 거지.

짜증이 났다.
팔을 이리저리 저으며
걸리적 거리는
이불을
꽉
터질 때까지
쥐어잡았다.
정적은 심장소리를 이기지 못했다.
불씨는 붉게, 붉게 공허를 채워갔다.

나는 타오르는데 반해,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아직도 침대 위에 누워있다.
몸뚱아리는 제 기능을 잃은 채
일정한 공명에 맞추어
흔들리며 부유하고 있었다.
불안감, 초조함, 열등감.
불씨는 불꽃이 되어 커졌지만,
장작은 그 열기를 버티지 못하고

투둑

무너지는 듯 싶었다.

장려작, 11학년 이용승 (초대)

설날에는

까만빛 까치가 조잘조잘 지저귀고

따뜻한 이슬비에 강물너테 녹아내린다

새아기 태어난 작은집에 초대받아

많고많은 식구들 옹기종기 모여앉는다

뭣다한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는데

옆방에는 새아기 나비잠 자고있다

사람들 들어가면 방긋방긋 웃는아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도담도담 자라다오